

무대공연 불안척도에 관한 연구*

김 정 숙

부산대학교 강사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불안은 신체의 활성화나 각성과 관련된 초조, 걱정 또는 공포감을 지닌 부정적 정서상태로서 인지적 불안이라고 불리는 사고적 구성요소(걱정이나 공포)를 지니며 아울러 지각된 신체적 활성화 정도인 신체적 불안 요소도 지닌다. 인지적 상태불안은 걱정이나 부정적 사고의 정도와 관련되는 반면, 신체적 상태불안은 지각된 생리적 활성화의 순간 순간적 변화와 관련된다¹⁾. 불안에 관한 연구는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을 구분한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인지적 불안은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염려, 주의집중력 상실, 주의 산만 등이라 할 수 있고, 신체적 불안은 속이 거북함, 땀의 분비, 오한, 심박수의 증가 등 신체의 자율적 반응증상에 대한 지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 증상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과정의 부적영향이며, 감소시키거나 제거되어야 할 과제이다.

* 이 논문은 2006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Gould, D. & Weinberg, R.(1997). *Foundations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Champaign, Illinois: Human Kinetics). 17, pp.219-225.

불안시 나타나는 행동적인 증상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하게 되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식은땀, 위경련, 건망증, 떨림 등 비정상적인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²⁾고 보고되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공연 시간에 이르게 되면 무용전공자들의 긴장은 고조되고 심박수 증가, 혈압상승, 그리고 아드레날린의 생산과 같은 각 개인의 심리 상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나타내고, 깊은 수면이나 극도의 공포에서와 같은 낮은 상태와 높은 상태의 범위 안에서 이동하는 것과 같다.

무용공연은 수 많은 시간 동안의 연습의 결과 쌓은 예술적 또는 미적 동작기술의 표현이고 이러한 무용공연은 조명을 포함한 갖가지 도구와 장치로 구성된 무대라는 특수한 물리적 환경과 수많은 시선을 가진 관객이라는 특수한 인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무용공연이 내포하는 독특한 물리적, 인적 환경은 연극이나 음악 등 공연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요소로서 무대위에서의 공연 및 그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공연예술에서의 무대는 무용수들을 포함한 모든 공연 예술가들에게 독특한 심리적 상태를 유발하는 인적, 환경적 조건으로 작용³⁾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김정우(1997)는 무용 공연 상황에서 무용가는 무대장치, 공연음악의 템포, 무대의상 등 외부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항상 공연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 공연전에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무용수가 느끼게 되는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무대불안이라 하며,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변한다⁴⁾고 하였다.

무대에서의 무용수는 본인이 의도하는 모든 것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안무, 그리고 관객과의 호흡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용수의 심리적 특성은 무대장치, 공연음악의 템포, 무대의상 등 외부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항상 무대에서의 공연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공연 전에는 심한 긴장을 갖게 되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⁵⁾. 그리고 공연시간에 이르면 무용수

2) 전병관(2000). 육상선수의 경기력과 심리적 불안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9(4), pp.257-264.

3) 문 영(1999). 『무용심리학』 (서울: 보경문화사), pp.268-291.

4) 김정우(1997). 무용수의 심리불안 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p.26.

5) 소은심(1994). 무용전공자들의 무대불안심리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p.19.

들의 긴장은 고조되어 심박수 증가, 혈압상승과 같은 심리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자신의 내적 반응에 대하여 공연전과 도중에 역할의 중요성, 공연장소, 그리고 관객들과 같은 환경적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무용수의 심리상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무용수행 과정에서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주위로부터의 평가를 부정적으로 예상하게 되고 그와 같은 예상은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⁶⁾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불안이라는 요소가 공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⁷⁾는 연구의 보고가 있는 반면, 문헌섭렵의 결과 무대상황에서 공연하는 무용수의 공연불안의 원인에 대한 많은 정보가 유용하지 않다⁸⁾는 연구의 보고도 있었다. 그러므로 무대공연에 있어서 불안에 따른 긴장은 작품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무용, 오페라, 연극 등의 예술 공연에 있어서 무대불안감의 측정은 매우 중요한 심리학적 방법으로서 최적의 공연수행을 위한 중요한 심리적 영향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무대공연 상황에서 무용수가 느끼는 불안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조절하기 위해서는 공연상황에 대한 자신감 훈련과 공연 시 상황적 불안 요소로 인한 불안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신체·심리적 조절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anxiety)에 관한 무용의 현장에서 심리학적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앞으로 학문적으로 대두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고 또한 무용의 과학적, 인지적, 실용적가치의 상위를 위한 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실행하기 앞서 연구자는 무대불안에 대한 척도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발표는 2002 아시안게임과 2003 아스파, 그리고 2003 유니버시아드 국제학술발표 등에서 발표되었던 선행연구들이다. 먼저, 2002 아시안게임에서 발표되었던 Development of the Questionnaire of Dance Performance Anxiety 연구에서는 Smith(1990)가 만든 스포츠 경쟁불안 설문지를 토대로 무용 공연시 무용인들의 불안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불안

6) 박준희(2000). 댄스스포츠 활동이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p.47.

7) Kleine, D.(1990). Anxiety and sport performance: A meta-analysis. *Anxiety Research*, 2, pp.113-131.

8) 문영, 김미숙(2001). 무용수의 공연불안 원인분석 연구, 『대한무용학회지』, 35, pp.182-202.

수준의 내용 중 불안, 걱정, 산만 요인으로 구성된 문항을 부산시 소재 무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1차 70명, 2차 50명, 3차 62명을 조사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설문지의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의 Cronbach' α 계수는 산만 .76, 불안 .64, 걱정 .63으로 신뢰성 있게 나타났다. 2003 아스파 국제학술발표에서 발표되어진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Stage Performance Anxiety Scale' 연구는 무대공연 전 상태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Smith 등(1990)이 개발한 스포츠 경쟁불안 설문지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무대공연 전 상태불안에 맞도록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된 20개 문항에 대한 요인탐색과 구조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Cronbach's α 계수 수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무용인 238명으로 하였으며, 공연 30분전에 측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수정 개발된 질문지는 총 20문항에서 1차 14개 문항에 3개요인, 2차 12개 문항에 3개 요인이 탐색되었으나 구성된 문항 내용상 개념에 문제가 있어 3차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개 문항에 인지불안과 신체불안 등 2개의 요인구조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14개, 12개, 8개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요인 8개 문항의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3 유니버시아드 학술발표에서는 'Verification on the Validity of Measurement Tool for the Performance' 를 통해 Smith(1990)가 만든 스포츠 경쟁 불안 설문지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무대공연 불안에 맞게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신뢰성을 확보한 '무대공연 불안 질문지' 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문항의 요소들이 무대공연 불안에 적합한지 분석하여 질문지의 유의성을 확인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질문지는 불안수준의 내용 중 불안, 걱정, 산만 요인으로 구성된 문항을 무용인 1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 α 계수,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질문지의 타당도를 조사하였으며, 총 20문항에서 3개의 요인 구조로 수정되어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이 신뢰성 있게 묶여져 나타났다. 구조적 타당화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개요인 12문항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무용공연이 신체적 훈련과 정신적 훈련의 조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수행에 대한 불안 심리의 적정 치유가 고려되어져 공연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서, 향후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무대불안 검사지의 개발을 통해 무용인들의 불안심리를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무대 공연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산 소재 P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용과 대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21세~27세(평균 24.06)의 범주로 나타났고, 남녀의 비율은 여학생이 169명, 남학생은 7명이며, 무용경력은 6년~12년(평균 8.93)의 범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Smith(1990)가 제작한 스포츠 경쟁불안 설문지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사전 연구를 통해 타당화 검증을 실시했던 설문지로 20문항의 문항구성에 있어서 실제 무대 공연시 자주 느끼는 불안 요소들을 세 가지의 영역 즉, 불안·걱정·산만의 요인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에 대한 답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시작하여 4점 '매우 그렇다.'까지 4점의 동간척도(Likert Scale)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문헌을 통해 나타난 20문항은 무용예술전문인과 스포츠심리전문가에 의해 질적 평가를 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무대공연불안 질문지를 무용예술전문인과 스포츠 심리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질문지를 완성하였고, 질문지 배포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무용발표 프로그램에 맞추어 본 연구자 외에 2명의 보조연구자가 함께 공연 전날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뒤 당일 공연 30분 전에 공연 현장감을 최대한 느끼며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자료처리

먼저 무대 공연시 불안 질문 문항 20개에 대한 요인을 구분하고 적합하지 않거나 중요도가 낮은 질문을 제거하기 위해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SPSS 11.0을 이용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추출을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방법을, 회전방법으로는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델 적합성 검증을 위해 Amos 4.01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자는 피험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통하여 각 문항에 대한 분포도를 살펴보고, 나타난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연구자가 본 질문지를 개발 할 때 의도했던 요인구조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설문지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에 대한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알파 계수를 통해서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았다.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각 문항에서 나타난 평균, 표준편차, 왜도(Skewness), 그리고 첨도(Kurtosis)와 같은 기술통계를 산출하여 살펴봄으로서 피험자의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았다. 극단치의 편중과 비울특성을 평가하기위해 첨도, 왜도에서 ± 2 이상인 경우와 평균과 표준편차가 극단일 경우 오류문항으로 간주하여 삭제하겠다는 기준을 정하고 각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문항이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각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점수를 보면 최소 1.49에서 최대 2.8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표준편차는 최소 .61에서 최대 .93까지였고 첨도와 왜도에서 ± 2 이상인 경우는 단 한 문항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1>은 문항의 기술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20개 문항의 관찰된 변수에 대한 잠재변수를 요약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잠재변수는 요인(Factor)이라고 불리는 변수로서 탐색적 요인분석은 각 문항의 측정개념을 나타내주는 관계의 구조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요인 분석은 관계되는 변인을 모으는 역할을 하며, 이것은 어떠한 변인이 어떤 그룹에 속하여 또한 이들은 어느 정도 속해있는지를 나타내준다. 요인분석결과 상관행렬의 고유치(Eigenvalues)1이상인 3개의 주 요인이 나타났으며 <표 2>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요인별 적재치를 보여주고 있다. 스크리 검사(Screen-

<표 1> 무대공연불안척도기술통계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공연을 시작하기 전 초조함을 느낀다.	1.82	.74	.33	-1.38
2. 공연 중에 주의가 산만함을 느낀다.	1.49	.88	.47	.01
3.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한다.	2.03	.72	.61	-.52
4. 몸이 긴장하여 굳어지는 것을 느낀다.	2.18	.84	.27	-.27
5. 공연 중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것에 염려한다.	1.57	.74	-1.54	-.13
6. 공연 시에 가끔 위장장애를 느낀다.	2.15	.61	.60	-.16
7. 무대중압감으로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다.	1.76	.86	-.69	-.07
8. 공연에 대한 부담으로 허기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2.57	.89	.53	-1.15
9. 공연 중에 실수를 할 것에 대한 염려를 할 때도 있다.	1.83	.71	-.62	.14
10. 긴장으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릴 때가 있다.	2.61	.79	-.71	.42
11. 나는 형편없는 공연을 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2.04	.91	.60	-1.19
12. 공연 중에 초조감으로 집중하는데 실패하기도 한다.	1.78	.84	.51	.36
13. 공연 중에 불안감으로 떨떨 떨고 있는 것을 느낀다.	2.63	.93	.34	-.46
14. 나의 공연 완성도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느낀다.	2.21	.83	.42	.29
15. 불안 때문에 몸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다.	2.85	.80	.48	.08
16. 공연수행에의 객관적 입장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2.14	.68	.37	-1.24
17. 공연전이나 공연 중에 속이 불편함을 느낀다.	1.80	.70	-.62	.55
18. 공연 중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에 염려한다.	2.18	.71	.55	.53
19. 공연 중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낄때가 있다.	1.69	.74	.26	.59
20. 공연 전에 가끔 심장이 크게 뛰기도 한다.	2.73	.83	-1.38	.46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요인별 적재치(18문항)

문항	요인1(걱정)	요인2(산만)	요인3(불안)	Alpha
Q1	.527			$\alpha=.7329$
Q5	.680			
Q11	.677			
Q14	.783			
Q18	.621			
Q2		.832		$\alpha=.7971$
Q7		.694		
Q8		.705		
Q9		.649		
Q12		.522		
Q16		.714		
Q17		.658		
Q4			.817	$\alpha=.8362$
Q10			.803	
Q13			.641	
Q15			.718	
Q19			.675	
Q20			.706	

test)를 통해 고유치의 패턴이 평균화를 이루는 기점을 조사한 결과 역시 3개의 요인만이 추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을 구분해 내기 위해 최소 요인 적재치가 .4이하인 경우와 요인의 적재치가 .4이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인과 중복될 경우 문항을 삭제하겠다는 기준을 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3개의 요인구조를 결정하였다. 첫번째 추출된 요인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대공연 불안감에서 ‘걱정(worry)’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소 적재치가 .527, 그리고 최대 적재치가 .738이었다. 두 번째 추출된 요인은 ‘산만(distracton)’으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소 적재치 .522, 최대 적재치 .832이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추출된 요인은 ‘불안(anxiety)’으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소 적재치 .641, 최대 적재치 .817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에 대한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하여 알아본 요인분석 결과 값이 .60을 적도의 내적 일치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 기준으로 볼 때 본

〈표 3〉 무대공연 불안 질문지의 측정모델 적합도 지수

Model	χ^2/df	GFI	CFI	TLI	NFI	RMR
18 items model	1.38	.92	.93	.92	.91	.04

연구에서 개발된 무대공연 불안검사 질문지의 3개 척도는 신뢰성이 있는 도구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나타났다.

3개의 요인 총 18문항의 무대공연 불안 질문지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절차를 위해 Amos4.01 프로그램을 통한 모델의 적합성 검증이 실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의 모델 적합성 검증은 χ^2/df , 기초적합지수(GFI), 비교적합지수(CFI), 표준적합지수(NFI), 비표준적합지수(TLI)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χ^2/df 가 2.0이하, GFI, CFI, TLI는 .90이상, RMR은 .05이하 일 때 그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카이제곱에 대한 유의도의 비가 1.38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고 GFI, CFI, TLI 역시 기준치인 .90보다 높게 나타나 무대공연불안 질문지의 신뢰로운 타당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수의 공연전 불안 해소를 위해 무대공연 전 상태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Smith등(1990)이 개발한 스포츠 경쟁불안 설문지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무대공연 전 상태불안에 맞도록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된 20개 문항에 대한 요인탐색과 구조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Cronbach's α 계수 수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무용전공 대학생 176명으로 하였으며, 공연 30분전에 측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수정 개발된 질문지는 총 20문항에서 18개 문항에 3개 요인이 탐색되었으며, 18개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요인 18개 문항의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스포츠를 대상으로 제작된 검사 도구를 참고로 수정 제작하였기 때문

에 충분한 문항이 수렴되지 않았으며, 스포츠에서 느끼는 불안의 정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개방된 문항을 수집하여 문항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요인을 탐색하여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수의 무대공연 활성화를 위해 공연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만들고자 척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의 사전연구에서 무용전 공자를 대상으로 한 무대불안척도 분석에서 세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걱정 .82, 산만 .71, 불안 .60으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었다.

이상과 같이 무대예술 공연에서 불안과 같은 부적요소들의 복합적이며 다양한 심리, 신체적 장애요소들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해소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지속적인 연구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스포츠에서만 적용되었던 심리측정의 다양한 요인들을 무용과 같은 무대공연예술의 영역에서도 그 적용을 확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무대공연 예술로의 향상된 변모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대를 본 연구에서 밝히는 바이다. 앞으로 무대공연불안감 척도를 통한 무대에 대한 긴장과 불안감의 해소는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무대공연의 기초자료로서 부적 요소의 많은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다양한 무용수의 대상 확대를 모색하여 꾸준한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부적요소가 감소될 수 있는 무대공연 예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정우(1997). 무용수의 심리불안 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문 영(1999). 『무용심리학』, 서울: 보경문화사.
- 문 영, 김미숙(2001). 무용수의 공연불안 원인분석 연구, 『대한무용학회지』, 35, 182-202.
- 박준희(2000). 댄스스포츠 활동이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 소은심(1994). 무용전공자들의 무대불안심리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전병관(2000). 육상선수의 경기력과 심리적 불안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9(4), 257-264.
- Gould, D. & Weinberg, R.(1997). *Foundations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Champaign, Illinois: Human Kinetics.
- Kleine, D.(1990). Anxiety and sport performance: A meta-analysis, *Anxiety Research*, 2, 113-131.
- Smith, R. E., Smoll, F. L., & Schutz, R. W.(1990). Measurement and correlates of sport-specific cognitive and somatic anxiety: The Sport Anxiety Scali. *Anxiety Research*, 2, 263-280.

논문투고일	2006년	2월	28일
심사일		3월	3일
심사완료일		3월	20일

A Study on the Stage Performance Anxiety Scale

Jung Sook Kim

Lecturer

Department of Da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attention of questionnaire by analyzed whether question items are suited to stage performance anxiety and recognized validity of questionnaire about stage performance anxiety which is obtained with corrected the questionnaire to be appropriate to suit the subject based on sport competition anxiety scale by Smith, et al(1990).

The questionnaire was investigated its validity by research to 176 dancers about factors of anxiety, worry and distraction and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 coefficient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accordance with a similar questionnaire of sports competition anxiety prepared by Smith et al(1990). This questionnaire was made up of 20 items of 3 factors and these items were shown reliably related.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structures of 18 items about 3 factors for structure validity scale.

The consequence of looking into the dance performer anxiety psychology based on statistics of the questionnaire suggests making effort to constantly develop programs for solving the stage anxiety. In view of the results performance should be attained for harmony between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actice. Futhermore the effect of stage anxiety on performance would be continued studying by research to dancers through stage anxiety questionnaire proved its reliability, validity and corrected its problems after an on-the-spot inspection. Therefore understand cognitive and physical anxieties felt by dancers during performance scientifically and find ways of improving such anxieties, ultimately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which many other researchers make further studies of the problem.

Keywords: Stage Performance Anxiety Scale(무대공연불안척도), Anxiety(불안), Worry(걱정), Distraction(산만), Questionnaire(설문지)